



국산 생녹용 표준규격화

이제 「국산 생녹용 품질 및 규격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품질과 규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지킬때가 된 것이다.

농가마다 품질과 규격이 달라 소비자가 혼선을 일으킨다면 국산 생녹용의 불신은 커져만 갈 것이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녹용은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해 수급되고 있다. 그런데 국산 생녹용은 관행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언제든 여론의 뭇매를 맞을 확률이 높다. 자율적으로 포장단위·품질기준·보관방법·유통기간 등을 제정하여 지킬 때 여론의 질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생녹용을 축산물로 유통시킨다 해도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어디까지나 「보약」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는 현실이다.

국산녹용 홍보를 위한 행사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생녹용의 품질과 유통기간 등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때면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생녹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서인지 상·중·하대 부위별 품질의 특성과 보관방법 등을 파고드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았다. 어느정도 상식을 갖고 있는 양록인이라면 쉽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답변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데이터를 조사하여 자체 표준규격을 서둘러 제정하여 소비자의 질의에 모든 양록인이 일치된 목소리로 답해야 한다.

생녹용도 시장에 나오면 엄연한 상품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표준규격에 맞도록

규격화 하여 유통시킬 때 소비자가 믿고 구입함으로써 신용이 지켜지고 거래가격도 정당하게 형성될 것이다.

나아가 국산 생녹용의 표준규격화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가는 정도(正道)이다. 「품질인증제」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엄선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 농산물의 성가를 보장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92년 7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국산 생녹용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뢰 확보와 판로 확대를 생각한다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최근 어느 양록농가는 국산 생녹용이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금부터라도 「국산 생녹용 품질 및 규격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양록인 스스로 지킬 때 「품질인증제」 진입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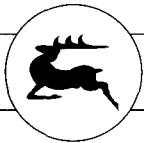
녹용을 보리차 처럼...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 동안 실시된 「제2회 양록연수회」에서 본회 이봉상 이사가 녹용을 보리차 처럼 음용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야기는 IMF사태가 터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의 녹용값은 지금보다 고가 이어 간혹 엘크녹용 한쪽을 구입해 가는 소비자는 있어도 양쪽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하루는 친면이 있는 분이 엘크 녹용 한마리분인 양쪽을 구입하러 찾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에 녹용을 가미한 보약으로 가족이 복용하기에는 과한 양이었다. 『어디에

사·슴 별·곡



사용하려 그러느냐』고 묻자 『1년 365일 보리차 대용으로 음용하려 한다』고 답했다.

사슴을 기르며 녹용을 생산하는 이봉상 이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녹용활용 방안을 소비자로 부터 한 수 배운 것이다.

녹용을 대추, 생강과 함께 끓여 온 가족이 보리차 처럼 마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봉상 이사도 별 생각없이 끓여 마셔보았다. 웬걸, 녹용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풍겨 마시기가 부담스러웠다. 다시 그 분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한 수 지도를 부탁했다.

녹용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지 말것! 펄펄 끓는 물에 생녹용 한두 조각과 대추, 생강을 20~30g씩 넣고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 마시면 된다는 거였다. 노하우는 바로 펄펄 끓는 물에 녹용을 넣는 시점에 있었던 것이다.

이봉상 이사는 또하나 의문이 들어 그 분에게 물어 보았다. 『녹용을 많이 먹으면 「돌머리」가 된다는데 괜찮느냐』고 떠보았다. 그분 왈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데 「돌머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겠느냐』며 응수했다.

그분의 말을 믿고 녹용을 보리차 처럼 끓여 장기 음용한 결과 만나는 사람들로 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녹용을 한약재에 가미하여 보약으로만 판매하기 보다 식품으로 접근하여 녹용을 보리차 처럼 음용하는 등 소비촉진을 꾀해야 할 것이라는 이봉상 이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봄직하다.

사슴유통의 새로운 발상

양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사슴유통의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중간유통업자와 농장주의 말만 믿고 사슴을 구입하기 보다 분양받을 사슴의 녹용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절각 하기전 녹용의 발달상태와 생산량 및 사슴의 건강유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속지 않고, 파는 사람도 의혹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끼사슴의 경우도 당해 생산된 사슴을 분양하기 보다 그 다음해에 녹용의 생김새를 확인시켜 주고 분양하는게 소득이 높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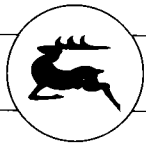
경기도 여주에서 엘크 100여마리를 기르는 본회 류용선 부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매년 우수사슴 현장조사가 있는 날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농장을 방문하곤 한다. 아비사슴의 녹용상태와 지난해에 태어난 새끼사슴의 첫빨을 확인하고 구입한 자료가 지금까지 상당수에 이른다. 첫빨에서 3봉이 피는 사슴을 최고로 치는 류부회장은 사슴가격을 별로 흥정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그동안 우수사슴 만들기에 전념해온 류부회장은 올해 출산된 새끼사슴 분양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빨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내년에 분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양의 신뢰를 심어주는 이유도 되겠지만 소득면에서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올해 출산된 우수사슴 자육(♂)을 500만원에 분양하는 것 보다 다음해에 첫빨을 확인시켜 주고 85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사슴의 사고(事故)만 없다면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따져 보아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다.

사슴유통업자나 농장주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사슴을 입식하여 잘못됐을 경우 시비하는 것 보다, 아예 처음부터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사슴유통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다.

언제까지 사슴유통으로 인해 속고 속이는 저



질 상흔이 우리업계에서 판을 치게 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질각전에 녹용을 확인하고 사습을 거래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보자.

용기있는 「언론」

혹자는 「흔히 신문을 일컬어 사회의 목탁(木鐸)이라 하고 신문인을 지칭하여 무관(無冠)의 제왕이라고 한다. 이는 신문이 사회 여론의 강력한 대변자임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서 나온 말로써 여론이란 어떠한 형태로 표현된 대중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통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실로 언론은 공통적 관심사에 대해 용기있게 목탁의 역할을 다할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사습신문」의 용기있는 유통인 비리고발 기사는 우리 양록인의 공통적 관심사에 정면으로 메스(mes)를 가한 사건이 아닐수 없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인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육을 채우기 위해 양록인을 우롱하며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이들의 행태는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사습신문」의 용기있는 보도자세를 폄하하며 광고 해지를 유도하려 한다는 낮부끄러운 「무언의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의 씩은 환부를 들어내고 새 살을 돋게하는 자정역할에 충실하려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다름아니다. 이해타산으로 점철된 몇몇 업자들의 사시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이럴때 일수록 정면

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많은 양록인들도 「사습신문」이 용기백배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정론직필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있는 신문의 진실보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수 있음을 교훈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때 영불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연패(連敗)당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데일리·메일지」에 영국군의 병기가 독일군의 병기보다 훨씬 결점이 많다는 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당당하게 실었다.

영국의 각 신문은 연일 유리한 보도만 게재하고 불리한 정보는 일체 비밀로 해왔었기 때문에 「데일리·메일지」의 기사를 믿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경영자 노스크리프는 상관없고 계속해서 전쟁의 진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데일리·메일사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당하여 발행부수도 차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문사가 망하더라도 진상 보도를 중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였더니 국민들은 겨우 그 진실을 알게되어 내각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로이드·조지를 새로운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생겨 병기개선, 군의 증강을 급속으로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전황은 일전하여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던 것이다.

「사습신문」은 A.피에르의 저서 오레스트에 나온 「때로 용기의 시련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을 각인하고 분발하기 바란다.

녹용의 브랜드화

최근들어 녹용도 브랜드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0우리축산물브랜드전」이 성료되고부터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축산물에서는 이미 브랜드명이 널리 퍼져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나열한다면 한우고기의 경우 들산상강한우, 대관령한우, 문경한우, 남해화전한우, 뜨레한우, 보성녹우, 산소한우, 속리산대추한우, 무화과한우, 백마강한우, 봉화한약우, 양주골한우, 예천참우, 안성마춤한우, 개군한우, 유자골한우, 익산황토우, 언양숙한우, 장수한우, 포천백운한우, 팔공상강우, 하동솔잎한우, 깎한우, 토함산버섯한우, 팍사랑한우, 흥천한우늘푸름, 화왕산옥총한우, 홍삼한우, 황우촌, 황성한우….

돼지고기는 남제주 으뜸도야지, 도드람포크, 디자이너포크, 마니머거도돼지, 그랑프리포크, 도뚜리, 길포크, 돈덴팜, 드림포크, 만나포크, 미래포크, 보성돈돈, 삼다포크, 생생포크, 셀렌포크, 박달재포크, 산청산음돈, 신선포크, 약돌돼지, 철원청정육, 크린포크, 백설순포크, 캡포크, 하르미돈육, 후레쉬포크, 황토포크, 하이포크, 한라산도야지….

계란이나 닭고기는 가농계란, 동의훈제란, 꼬꼬네, 마니커, 해피치킨, 이슬란, 246계란, 칠갑산토종닭, KN영양란, 청리토종닭, 춘천정말로닭갈비, 체리브로, 치키더키, 하림닭고기, 치크치크, 황토한약재래토종닭, 향계촌….

이외에도 목우촌, 서울우유, 수원왕갈비, 녹용사슴육골죽, 참맛나는육포, 한라산참꿀, 혜성유황오리, 흑성산벌꿀 등등….

대부분 지역명이나 특징있는 먹이에서 이름을 따 브랜드화 했으며 돼지고기는 포크(Pork)란 영어가 눈에 띈다. 포크는 돼지고기를 뜻한다.

녹용도 예전에 별칭이 없었던게 아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강원도에서 생산된 녹용을 「강용」

이라 했다고 한다. 브랜드명은 아니지만 지금도 한의약업소에서는 수입녹용에 별칭을 부쳐 부르고 있다. 중국산 마록 녹용을 「깎까리」라고 하고 러시아산 마탈 녹용을 「원용」이라 한다. 뉴질랜드산 녹용은 「뉴짜」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것은 러시아산 녹용을 「원용(元茸)」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를 풀어쓰면 녹용중에서 으뜸이란 뜻인데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맨처음 러시아산 녹용을 국내에 들여온 사람은 화교(華僑)들이었다. 이들이 중국산 녹용에 익숙한 국내 한의약 업소를 파고들기 위해 「원용」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전파시켰다. 이 신조어가 그대로 먹혀들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약재에서는 브랜드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약재로 사용하는 녹용도 구태여 브랜드명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며 축산물로 판매하는 현실에서는 녹용의 브랜드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높아졌다.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을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먹이, 사육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명을 도입하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것으로 예견된다.

약초를 급여해서 생산했으면 「한방녹용」 또는 「약초녹용」, 사슴을 산에 방사하여 생산했으면 「야생녹용」, 주위환경이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했으면 「청정녹용」, 강원도 대관령 기슭에서 생산했으면 「대관령 녹용」 등으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등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다가 양록인들끼리 브랜드명을 놓고 싸움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된다.

브랜드명은 상업적으로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업체나 조합에 우선 필요할지 몰라도 일반 사슴농장에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판단할 몫이다.*